

# “해외독립영화제 출품, 미국TV 방영이 목표”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 제작하는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

원효 스님 사상, 현대적 구성해 70% 제작 완료, 내년 5월 공개 11월 4일 정우 스님 제작비 후원



“미국 방송사에서 활동하며 한국이 낳은 대사상이 원효 스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다큐 ‘원효’의 해외 독립영화제 출품, 미국TV 다큐 방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원효 스님의 원융 화합과 자재무에 철학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춤추는 붓다”를 제작하고 있는 김선아 감독(사진 왼쪽)은 11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아름다운동행의 제작비 지원금 전달식에서 작은 바램을 밝혔다. ‘원효, 춤추는 붓다’는 미국에서 6년간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를 제작한 김 감독이 지난 2013년 9월 제작에 들어간 다큐 영화로 원효 스님의 삶과 철학을 다루고 있다.

다큐는 먼저 원효 스님이 생사의 덧없음을 알고 출가를 결심하는 데서 시작해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닫는 이야기, 요석공주와의 인연, 승복을 벗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무애행을 펼치는 과정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번역한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와 원효학의 대가인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강수를 맡아 학술적인 깊이도 더한다.

김 감독은 그동안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자리는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기금 부족의 소식을 전해 듣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마련했다. 정우 스님은 뮤지컬 매퍼미아 등으로 유명한 신시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의 스틸컷. 2016년 5월 개봉 예정이다.

뮤지컬 컴퍼니를 세우고 지속적인 문화포교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는 70% 가량이 촬영된 상태다. 2016년 5월 시사회 본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김 감독이 바라본 원효 스님은 어떤 모습일까.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이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비견된다고 평한다.

2012년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를 읽고 인생의 허무와 상실감을 극복하고 다큐 ‘원효’ 제작을 결심한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의 사상은 다른 서양철학과 달리 존재론적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다른 성인파도 같은 경지”라고 말했다.

“원효 스님의 일심, 화정 사상과 함께 무애행은 서양사회에서도 큰 가르침을 준다. 특히 진리와 세속이 다르지 않다는 ‘진속불이(眞俗不二)’는 현대인들에게도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김 감독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한국의 사상이를 알리는게 부족

하다는 것을 꼽았다. 김 감독은 “서양에서 철학을 하면 노자에 대해 알지만 한국의 대표 사상·철학자인 원효 스님을 알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그동안 많은 불자들이 심시일반 후원으로 2000만원 가량이 모인 영화 제작을 위해 왔다. 이번 정우 스님의 후원으로 영화 제작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11월 세계3대 국제독립영화제인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른 프로듀싱 작품이 출품되는데 현지에서 ‘원효’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아 감독은 1997년 미국으로 건너가 34세이던 2003년 캘리포니아주립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전공했다. 김 감독은 한인방송에서 성공한 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더 포트폴리오’ 극본·연출·제작을 담당했고 2010년 전주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장편영화 ‘키스할 것’ 등 다수의 영화를 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 천성산 비경·역사·불교문화유산 소개

양산시립박물관, 인구 30만 달성 기념 특별전시회

보물급 문화재 등 유물 100여점 전시 시집 <소금강내원사시선> 최초 공개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양산시 인구 30만 달성을 기념해 내년 1월 24일까지 영산(靈山)인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시회를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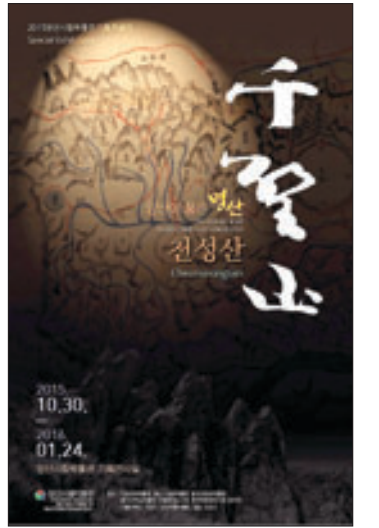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양산의 대표적인 명산(名山)인 천성산(千聖山)의 역사·지리적 경관, 고고·불교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주제에 따라 5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천성산(해발 922m)은 양산의 웅장지역과 상북면, 하북면을 연결하고 있는 산으로 예부터 원적산(圓寂山), 소금강산(小金剛山), 원효산(元曉山) 등 6명성만큼이나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천성산’이라는 이름은 원효대사의 제자 천 명을 <화엄경>으로 교화해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성산의 지리적·역사적 위치, 삶의 터전으로서 천성산 관련 유적, 원효대사가 1,000명의 제자를 이끌 어 지었다고 전하는 89개 암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원사계곡, 홍릉폭포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성산 정상부에 펼쳐진 화엄법 등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도 함께 공개한다.

노덕현 기자



특히, 이번에 최초 공개될 <소금강내원사시선(小金剛內院寺詩選)>은 경봉선사(鏡峰, 1892~1982)가 내원사 주지로 주석하던 시절 천성산을 찾은 묵객들이 소금강, 즉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시들을 모은 시집이다. 천성산의 수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매우 희귀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로도 매우 귀중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복제본이지만 가장 오래된 일본 고산사(高山寺) 소장 원효영정(13세기)과 원효의 일대기를 무려 14m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표현한 화엄종조사회권(華嚴宗祖師繪卷)도 눈여겨 볼만하다.

## 부처님 나라 ‘인도’를 만나러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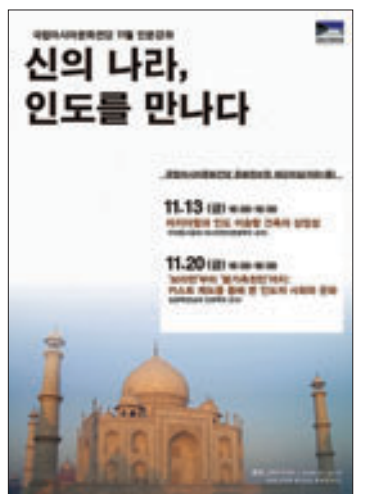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1월 13·20일 인문강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11월 13일과 20일 ‘신의 나라, 인도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정보원 지하 1층 대강의실에서 인문강좌를 연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13일 구하원 교수(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타지마할과 인도 이슬람 건축의 상징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타지마할(Taj Mahal)은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Shah Jahan)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었다는 무덤으로, 인도 이슬람 건축의 유래와 타지마할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조명한다.

20일에는 김영학 교수(전남대 인류학과)가 ‘브라만부터 불가촉천민까지: 카스트 제도’를 통해 본 인도의 사회와 문화 주제 강연을 통해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고 지속되어 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또 그로 인해 인도 사회



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오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인도에 대해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번 강좌가 인도와 인도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2)601-4048 노덕현 기자



## 혼돈 속에도 질서가... ‘순간에서 영원으로’展

이중근 개인전, 11월 29일까지 대안공간 루프서 개최

만다라는 세상의 다양한 군상들이 함께 어우러져 또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보면 어지러운 그림도 자세히 보면 일정한 규칙을 통해 조화와 균형미를 보인다.

이중근 작가는 11월 29일까지 서울 서교동 대안공간 루프에서 현대의 다양한 이미지를 화려한 패턴으로 재구성한 ‘순간에서 영원으로’전을 개최한다.

섬유미술과 응용미술을 공부한 이중근 작가의 작품은 수공예적인 패턴 작업과 디지털 사진 콜라주의 융합으로 이른바 순수미술과 디자인, 구성과 추상, 일상과 예술의 경

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 개인이 2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는 이중근 작가를 대표하는 패턴 모티프의 드로잉부터 인물 사진 작업, 인쇄 기구와 LED 조명 작업 등이 선보인다.

이중근 작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단면이나 일상 풍경 속 다양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재배열해 패턴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만다라의 현대적 재구성으로 이 작가는 이 세계의 혼돈 속의 질서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종교를 소재로 믿음, 정진 등을 이미지로 제시했다. 감각적이고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패턴 속에 담긴 삶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화려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중근 작 'Love' 사진제공=대안공간 루프

**도승(道僧) 덕정스님**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총무원장  
BTN 불교TV 참수행 특별법회  
CMB 방송 초청 설법

사이트 open!  
TV  
참수행 인터넷 방송  
참수행.kr | 참수행.한국  
chamsuhaeng.tv

**"나는 무엇인가?"**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모든 해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인연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수행 정각사는 수행전문도량으로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법을 공개하였으며 정진 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도(正道)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자예롭고 용기 있는 분들만이 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승인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시고 서산대사님, 사명대사님이 정진하신 차원 높은 고급수행법 고도의 참수행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 www.chamsamo.net | 도서출판 참수행 : www.chamsuhaeng.co.kr  
**전화문의 서울본원 : 02-2269-0813 [대전, 대구, 부산]**  
※ 전화상담은 2개월 과정 등록 및 재관련 방문 예약만 가능(기타 자세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화 상담불가)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참수행 정각사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